

전교생 38명 강진 칠량중학교 '야간공부방'

폐교 위기서 학생중심 '즐거운 학교'로

교장·교사·학부모 한마음... 전교생 일대일 지도

정규수업이 끝났는데도 학생들이 방과후 야간학습에 여념이 없다. 교사들은 학습지도는 하는 짬만 학생들의 저녁밥을 지어 먹고, 심지어는 오후 9시 이후 하교하는 학생들을 승용차에 태워 집에까지 바래다주기도 한다. 학부모들은 순번제로 고구마와 옥수수를 삶아 학생들에게 간식으로 제공한다.

에서 '구원투수'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지난해 3월 부임한 심경섭 교장이 등장한다. 심 교장은 학교의 연혁과 현황과 악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 나섰다. 우선 학생중심의 학교를 만들기 위해 동아리활동과 학생회를 활성화하고, 권위주의적인 교장에서 탈피해 교사와 학부모·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소통하는 지도력을 통해 변화의 새 바람을 일으켰다.

심 교장은 또 교무회의를 의결기구로 격상시킨 뒤 결손가정 학생들을 위한 '야간 공부방' 운영에 대한 안건을 교무회의에 상정해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공부방 운영은 심 교장이 생각했던 것처럼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의 동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심 교장은 지역사와 유지는 물론 균형·교육청 등을 찾아 도움을 호소했다.

현재 칠량중은 교사와 학생간 일대일 지도방식을 확립하고, 매일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 영어·수학 등 5개 교과목 강좌를 운영한다. 이밖에 일주일에 두번 전교생을 대상으로 밴드부·연극부·사물놀이 등 아리 등 특기적성 교육 프로그램

을 실시하며, 광주 치평중과 도·농 교류학습체제를 실시하고 있다.

학생회장 송아영(3년)군은 "규제위주의 학교 생활규정이 학생들의 의지를 저곡적으로 반영해주는 쪽으로 바뀌어 즐거운 학교가 됐다"고 말했다. 수학교사 장은아씨는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교사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다"며 환하게 웃었다. /김정=남철희기자 choul@



은어·참게 등 토산 어종 부양

광양시는 지난해 29일 옥룡천, 봉강천 등 6개소에서 학생·시민·공무원 등 2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은어 10만마리와 참게 3만마리, 메기 11만마리 등 토산 어종을 부양했다.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열리는 자연 생태계 복원과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 (광양시 제공)

은어·참게 등 토산 어종 부양. 광양시는 지난해 29일 옥룡천, 봉강천 등 6개소에서 학생·시민·공무원 등 2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은어 10만마리와 참게 3만마리, 메기 11만마리 등 토산 어종을 부양했다.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열리는 자연 생태계 복원과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 (광양시 제공)

목포항 개항 이후 첫 수중쓰레기 수거

항만청 112년만에... 페타이어 등 1천192t

"바다밑이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페타이어는 물론 각종 어구에 낚장고까지 없는 물건이 없습디다" 목포 지방해양환경청은 목포항 개항 112년 만에 목포항 수중 침적 쓰레기를 대대적으로 수거한다고 지난날 31일 밝혔다.

일간 목포항의 수중 쓰레기를 조사한 결과, 1천192t으로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항 26ha에 걸쳐 841t이, 북항 28ha에 351t이 각각 방치돼 있었다.

목포 항만청은 오는 11일 정종득 목포시장을 비롯해 김삼열 목포항만청장 등 기관, 단체장과 환경단체 등

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항 관공선 부두에서 '목포항 수중 침적 쓰레기 수거 시연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수거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목포항만청은 이 쓰레기를 치우는 데 17억원의 투입하기로 했다.

김삼열 목포항만청장은 "목포항을 아름답고 깨끗한 항구로 만들기 위해 개항 이래 처음으로 대규모 쓰레기 수거작업을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 /목포=이성진기자 ssllee@

/ 남도 체험 떠나보세요 /

찾아내고... 산책하고... 갯벌서 놀고...

10월까지 보성 '차 만들기'

보성군이 지난 5월부터 오는 10월까지 보성차밭 일원에서 '차(음식) 만들기' 체험장을 운영, 관광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달 31일 보성읍에 따르면 5월초부터 보성 분선리 청우녹차 등 차 만들기 체험장 18개소와 벌교 징갈양차 등 녹차음식 체험장 4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사진)



5월 합달간 차 만들기 체험객이 2천명을 넘어서 차 재배농가의 소득증대 및 녹차수도 보성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효과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지난해에 비해 지역을 찾은 전체 관광객 수는 다소 줄었지만 차만들기 체험 관광객은 같은 기간 대비 30배 정도가 늘어 보성군의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부상할 태세다.

차 만들기 체험은 차잎 따기와 차(음식)만들기, 다례 등으로 꾸며져 차와 녹차음식과 지역 특산물 맛보기, 차밭 투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돼 관광객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차 만들기들을 체험하려면 균형 녹차사업단이나

전남도관광협회로 신청해야 하며, 체험비는 1인당 1만 2천원이다. 보성군은 단체 관광객에 대해 지역별 버스비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한편 지도요원 30명을 배치해 차(음식) 만드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은 물론 다례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관광객들이 보성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각종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차 만들기 체험관광을 통해 녹차수도 보성을 널리 알리고,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농촌의 활력을 높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061-285-0832 /보성=선성기자 sun@

신안 증도 '갯벌 생태 체험'

"아이들에게 바다와 환경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자"

신안군은 지난날 31일부터 오는 5월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슬로 시티' 증도에서 '2009년 갯벌 생태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체험 행사는 제 14회 바다의 날(31일)과 환경의 날(6월 5일)을 기념하고 친환경적인 생태관찰 위주의 갯벌체험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매해 40명을 대상으로 지역 갯벌의 생물상, 역사와 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오감체험 활동을 진행한다.

특히 갯벌 특성을 살린 테마를 주제로 정해 ▲우진 해수욕장 숲 생태체험(산책과 자전거) ▲짚방어 다리 갯벌 생태교실(느리게 보는 갯벌) 슬로푸드 체험 ▲천일염 체험(소금박물관 관람, 염식 만들기) 관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증도 갯벌생태전시관 유영업 관장은 "앞으로 숲 생태체험, 갯벌체험, 천일염 체험, 역사문화 탐방 등 증도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을 개발,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안=조만기자 wncho@

완도해경 재난대응 안전훈련

최경주공원 앞 해상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지난날 27~29일 완도항 일원에서 '2009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28일에는 완도읍 최경주공원 앞 해상에서 지진해일로 인해 입항중인 여객선 1척과 충돌하는 가상 재난상황을 설정,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벌였다. (사진)



완도. 완도해경은 이번 훈련을 통해 국가안전 관리계획과 위기대응 매뉴얼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각종 재난관리 책임기관 공조·협력체제를 구축했다.

김정식 완도해경 서장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해양오염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기자 ejchung@

여천 NCC 2공장

보수공사로 가동중단

여수 국가산업단지내 YNCC 제 2공장이 지난날 30일 오전 정기 보수공사를 위해 가동을 중단했다.

이번 가동 중단은 내부부품 청소 등 매년 실시하는 정기 보수공사를 위한 것으로 사전에 동사무소 등 관계 기관에 통지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가동을 멈추는 과정에서 발생한 검은 연기 등으로 인해 119에 신고하는 등 한차례 소동을 빚기도 했다.

YNCC 관계자는 "공장가동이 중단되면 공정에 남아있던 잔류가스가 불완전 연소돼 검은 연기와 불꽃이 솟아 오를 것"이라며 "정기 검사와 보수는 10~15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수=박영규기자 ykpark@

Large real estate advertisement table for (주)국민법률경매. It includes a logo for 'Km' and lists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cross different districts like Gwangju, Gwangju, and Gwangju. The table has columns for '지역' (District), '소재지' (Address), '면적' (Area), '건평' (Floor Area), and '최저가' (Minimum Price). It also features contact information for '공인중개사: 강영희' (Licensed Real Estate Agent: Kang Young-hee) with phone numbers 0621364-8700 and 010-4608-3700.

• 서구청 옆 광주세무사타운5층 • 권리분석·현장답사·입찰대행·낙찰·잔금부족시 최저금리 대출임선·명도(이사)